

보도시점 2025.8.13.(수) 10:00
(2025.8.13.(수) 석간)

배포 2025.8.12.(화) 18:00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현장과 함께 과학기술 주도 ‘진짜 성장’ 이뤄낼 것

– 배경훈 장관, 현장 소통에서 새 정부 연구개발 혁신 방향 강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13일,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금년 9월에 발표하는 「(가칭)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수립 과정을 점검함과 동시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민간 자문단을 구성하고 8개 분과, 50명이 넘는 현장 전문가들이 지난 1달간 20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안 도출에 전념 중이다. 이와 동시에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공지능(AI) 미래기획 수석이 직접 현장과 소통하며 매주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듣고 있다.

* ▲기초연구 발전 방향(7.16, 기초과학연구원), ▲연구 몰입을 환경 조성(7.23, 경북대), ▲과제평가 개선, 연구장비 활용(8.6, 울산과학기술원),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개선(8.7, 연세대), ▲민간 자문단 1·2차 회의(7.25/8.8)

이번 간담회는 이런 현장 목소리를 연구자 시각에서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와 소속에서 젊은 연구자와 기업인,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 시스템의 전문성과 연구 현장의 자율성, 지속 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부 연구개발 투자 예측 가능성 제고, ▲도전·창의적 연구 촉진,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혁파 방안, ▲과제 기획·평가 시스템 개선, ▲성과 확산 및 기술사업화 촉진 등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 지능과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국가 대전환을 통해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연구개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오늘 이 자리를 포함하여 그간 제기된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학, 출연연, 기업 모두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가칭)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을 9월에 발표하고, 과학기술 주도 ‘진짜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배경훈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어제 오전 배터리 화재 사고가 발생한 유회진학술정보관 내 실습실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각별한 연구실 안전 관리를 당부하였다. 간담회 종료 후에는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 :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이혁재 교수)」 내 주요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 온라인 국민소통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모두의 연구개발(R&D)’ >

- ▶ 국민 누구나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소통의 장
- ▶ 제안된 의견은 댓글과 토론으로 구체화, 인공 지능으로 편의성 향상
- ▶ 범부처 IRIS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 (<https://www.iris.go.kr/modu>)

담당 부서 <총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기반팀	책임자	팀 장	이승윤 (044-202-6760)
		담당자	사무관	장남섭 (044-202-6762)
<공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책임자	과 장	이종우 (044-202-6730)
		담당자	사무관	이재철 (044-202-6731)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